

지역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 지역에서 소비



군산시의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전략이 효응을 얻고 있다.

먹거리전략(Food Strategy)은 일반적으로 푸드플랜(Food Plan)으로 혼용돼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먹거리전략은 건강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취약계층과 더불어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먹거리는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선 7기 군산시 농업정책의 핵심은 지역 먹거리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군산에서 유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최소수준 이상의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라북도와의 시·군간 협력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연계시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군산시 먹거리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군산시 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성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농업의 범위를 생산에서 소비자의 밥상으로 넓게 인식하고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먹거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개편한 시는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지난 2019년 전국 9개 지자체 중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2019~2022년)됐다.

또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군산시가 출연한 먹거리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군산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지역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지역 내 많은 가공업체들이 있다.

그동안에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최저가 및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돼 우리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지만, 앞으로는, 먹거리위원회(먹거리 시민 거버넌스)와 관련분야 지역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산시 푸드플랜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이 안전성과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공공급식을 지역의 환경친화적인 먹거리로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지역 학교급식,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은평구·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물류교류에서 서부권 거점센터로서의 물류공급, 지역아동센터 급식,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쌀공급 등 기존 관계시장은 물론, 관내 공공기관 급식시장 개척 및 지역화를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먹거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정책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옥산농협 로컬, 군산농협 로컬, 재단법인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건립된다. 이로써 관내 중소가족농은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게 되며, 시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접근성이 확보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는 건강한 먹거리 교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군산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시 로컬푸드 지자체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연계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안전품질관리 검사를 하고 있으며,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608명의 농업인이 로컬푸드 출하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80여 명이 인증을 신청



시 먹거리재단 설립·운영

로컬푸드 지자체 인증 시행

스마트팜 등 재배 방법 도입

식품제조기업 육성 노력

식량작물 품목 다양화

해 인증제 부여를 위한 토양과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먹거리 소비의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유주방, 공유부엌, 로컬카페, 대학생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농축수산물, 지역가공식품의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요한 먹거리를 위한 기획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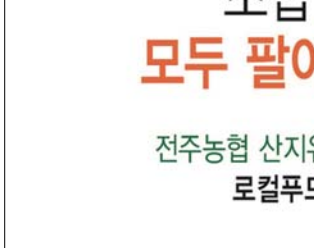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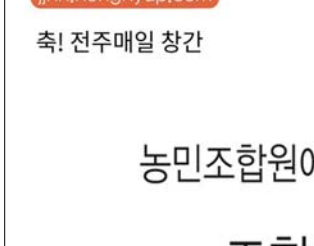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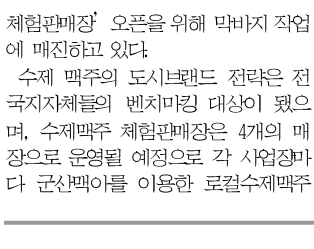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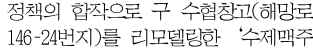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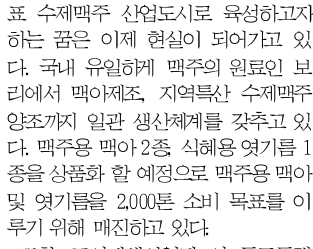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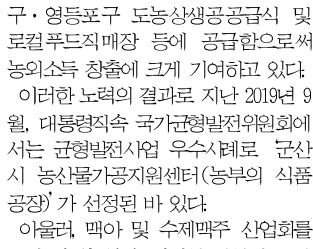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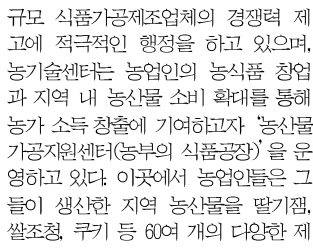
농산물의 품목별 능가별 관리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 유통 저장 등에서 시기별로 품목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능가관리를 기반으로 기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체계적인 기획생산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작 중심의 군산농업을 소비자와 시민들의 수요를 예측, 분석해 다양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돼 먹거리 지역화 70%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기획생산을 준비 중에 있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도입 등 능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학적인 재배 방법 등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군산 지역 과일 및 과채류의 타시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및 농업인 육성책을 마련, 우리 지역 내 생산기반 조성, 노지 채소 기계화 단지 조성 등 30ha 규모로 생산기반을 늘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다품종 생산농업인 1,000명을 육성해 기획생산을 통한 전라지역 육성도 힘을 모으고 있다.

▲가공의 부가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식품가공

시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상품화작업을 통해 원료 지역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개발 및 식품분야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규모 식품제조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전통식품육성, 지역농식품지원화, 소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군산대표관광상품으로 수제맥주 브랜드 창출과 인지도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산업 분야

군산에서 쌀, 보리는 농업인과 농업의 자존감이다. 군산의 쌀, 보리는 전체농업소득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시는 식량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식량산업 5개년(2019~2023)종합계획을 수립해, 쌀 경쟁력제고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중심의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3억6,000만원을 투자해 시설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자재물 및 발식량작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다각화로

식량작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육구농협에서는 육구·육서 농민들과 귀리를 생산해 지역화하고 도시민들에 건강하고 다양한 식량작물 공급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치하여 시민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군산시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의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2조7,000여이 넘는 군산시 먹거리 경제시장에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업체들이 생산한 먹거리로 지역화를 이루어 지역경제 견인 역할은 물론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jjnh.nonghyup.com

축! 전주매일 창간

농민조합원에게 농사연금을 드리는 전주농협!!!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농산물 최고!!

농민과 도시의 상생정신을 지키는 전주농업협동조합 063) 287-8111